

【오카야마의 여름 풍물시 「우라자」】

안녕하세요. 오카야마 시장 오모리입니다.

지난 8월 1일(토), 2일(일)의 양일간 오카야마 거리는 「우라자」의 열기에 휩싸였습니다.

「우라자」는 매년 8월 첫 번째 토, 일요일 시내 중심부에서 개최되는 「춤」을 중심으로 한 시민 참가형의 축제로서 올해로 22회를 맞이했습니다. 옛날 이야기 「모모타로」의 도깨비를 모델로 했다고도 전해지는 「温羅 (우라)」에 오카야마 사투리로 말끝에 붙는 「~자 (~이다)」를 붙여서 만든 것이 그 이름의 유래입니다.

제가 한때 오카야마에 있었을 때의 여름 축제는 전반적으로 다소 암전한 느낌이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이 「우라자」는 춤을 추는 여러분의 웃는 얼굴과 의상, 그리고 춤을 추는 분뿐만 아니라 관객분들도 참여하고 있는 우라를 표현한 화장(우라 화장)이 거리에 반영되어 한마디로 큰 에너지 덩어리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도 30년 이상 오카야마에서 떨어져 살았었고, 실제로 「우라자」에 참가한 것은 사실 이번이 처음 (지난해는 국제 우호 교류 도시의 캘리포니아 산호세시를 방문 중). 토요일은 시모이시이공원, 오모테초 상가, 이온 몰에서 그리고 일요일은 시청 길을 중심으로 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만, 양일 모두 불별더위의 일기를 기록해 서 있는 것만으로도 열사병이 걸릴 것 같은 폭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일요일

밤의 마무리 춤까지 이틀간 완전 연소시킨 무용단 여러분의 에너지에 압도되어 매우 감동 하였습니다.

올해는 139 무용단 6천 명 이상이 참가하는 오카야마의 여름의 풍물로서 널리 정착 되고있는 「우라자」. 보는 것도 좋고, 추는 것도 좋습니다. 시외에 계신 분들도 내년에는 꼭 이 열기에 참가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또한, 당일은 한국·부천시 방문단도 오카야마에 오셨습시다만, 많은 시민이 참여하는 활기찬 축제라는 점 그리고 끝난 후 쓰레기가 모두 정리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많이 놀랐다고 합니다.